

예열 모의고사 1회

구분	No	화제어 / 작품	출처 / EBS 연계
독서	1	독서론	자체 제작 지문
	2	인격 동일성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98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
	3	환위험 헤지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121 환위험 관리)
	4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결정화 과정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206 초임계 유체와 분리 공정)
문학	5	태평천하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163)
	6	눈 오는 지도, 이름, 석가산기	자체 제작 지문 (수완 p.202 눈 오는 지도)
	7	숙향전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121)
	8	선상탄, 비가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243 선상탄, 수완 p.142 비가)

스피드 정답

1. ④

2. ②

3. ②

1. 답 ④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독자의 읽기 능력과 배경지식은 독자 요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낮은 독자는 적당한 수준의 이해에 만족하고 책을 훑어 읽거나 읽기를 멈추게 된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같은 책을 읽더라도 책의 소재를 익숙하게 느끼는 독자는 그 내용을 쉽다고 인식하여 낮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익숙한 소재의 책을 읽을 때 독자는 책을 더 유심히 읽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이해에 만족하고 책을 훑어 읽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한 명의 독자라도 책에 따라 응집성 기준이 다르게 형성되거나, 하나의 책을 읽는 과정 중에도 응집성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즉, 여러 독자가 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의 응집성 기준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답 ②

[문항 해설]

주어진 글에는 학생이 자신의 독서 활동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응집성 기준은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목표하는 이해의 수준으로, 독자가 책을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쳤었다.

구분	요인
상황 요인	독서 환경, 읽기 목적, 목표 설정의 자율성
텍스트 요인	책에 담긴 글의 구조, 난이도
독자 요인	독자의 읽기 능력, 독자의 배경지식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독서 활동에서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형성된 응집성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상황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응집성 기준
㉠	읽기 목적 (상황 요인)	높아짐
㉡	읽기 목적 (상황 요인)	높아짐
㉢	책에 담긴 글의 구조 (텍스트 요인)	낮아짐
㉣	독서 환경 (상황 요인)	낮아짐
㉤	글의 난이도 (텍스트 요인)	낮아짐

[정답 해설]

[문항 해설]에 따르면 ㉠(과제를 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는 읽기 목적, 즉 상황 요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학생은 더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일정한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문항 해설]에 따르면 ㉠(책의 내용을 과제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는 읽기 목적, 즉 상황 요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학생은 더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전략적인 독서를 하여 이미지를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문항 해설]에 따르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여)는 책에 담긴 글의 구조, 즉 텍스트 요인에 해당한다. 3문단에 따르면 상황 요인과 텍스트 요인은 각 요인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독자의 인식, 즉 독자 요인을 매개로 하여 응집성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문항 해설]에 따르면 ㉣(시간에 쫓겨)는 독서 환경, 즉 상황 요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친구는 낮은 응집성 기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문항 해설]에 따르면 ㉤(너무 어려워)는 글의 난이도, 즉 텍스트 요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학생은 낮은 응집성 기준이 형성되었다. 2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낮은 독자는 적당한 수준의 이해에 만족하고 책을 훑어 읽거나 읽기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적절하다.

3. 답 ②

[<보기> 분석]

<보기>에서 학생은 과거 선비들과 달리 자신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대충 읽고 넘어갔으며, 앞으로는 항상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전략적인 독서를 하여 이미지를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반면, 응집성 기준이 낮은 독자는 적당한 수준의 이해에 만족하고 책을 훑어 읽거나 읽기를 멈추게 된다. 이를 통해 <보기>의 선비들은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여 책을 읽은 것과 달리 학생은 책을 읽을 때 낮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는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앞으로는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접하고 있는 책에 따라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응집성 기준을 조절하는 것이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의 관점에서 때로는 완벽하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낮은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독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학생에게 조언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앞으로는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즉, ㉠의 관점에서 독자가 의식적으로 응집성 기준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은 독서에 방해가 된다고 학생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앞으로는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응집성 기준이 높은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의 관점에서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올바른 독서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학생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앞으로는 항상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읽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접하고 있는 책에 따라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즉,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의 관점에서 적절한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학생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과거 선비들은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여 책을 읽었다. 즉, ㉠(응집성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의 관점에서 과거 선비들처럼 모든 글자의 의미를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응집성 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학생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스피드 정답

4. ②

5. ④

6. ③

7. ⑤

8. ③

9. ④

4. 답 ②

[정답 해설]

(가)는 인격 동일성 문제를 로크, 칸트, 그리고 파핏 각자의 관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인격 동일성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글 전체의 흐름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칸트가 로크의 기억 이론을 지적한 것은 맞으나, 이를 보완함으로써 기억 이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바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는 데이비슨의 늑 인간 사고 실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사례가 전통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④ (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격을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상태로 환원해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소개함으로써 특정한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가지는 장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 ⑤ (나)에 등장하는 데이비슨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강화된 환원적인 사고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론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이론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5. 답 ④

[정답 해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기억의 연속성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기억이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2~3문단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늑 인간 사고 실험에서 번개가 내리쳐 '나'는 소멸하고 물질적 복제물인 늑 인간이 생겨날 때, 늑 인간이 '나'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를 가졌음에도 '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즉, 데이비슨에 따르면 늑 인간은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며, '나'와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의 연속성 역시 가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기본 정보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어느 날 '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눈을 뜨더라도 '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나'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우리는 '나'가 신체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유지된다는 직관을 가진다.
-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파핏은 기억이나 신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만을 받아들였을 때, 과거의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서 현재의 '나'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즉, 파핏은 과거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라고 볼 미래의 '나'가 같은 시간 대에 여러 명 존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늑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 복제물이 아니라 '나'의 기억과 습관까지 지닌 것처럼 보이며 아무도 '나'와 늑 인간을 구분할 수 없다고 가정했다. 즉, 데이비슨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존재로 늑 인간을 전제했 것이다.

[오답 보충 설명]

필자가 not a BUT B의 표현처럼 상댓값을 통해 제시해 주는 구간은 서술하고자 하는 개념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독자도 늑 인간이 물질적 복제를 넘어 '나'의 기억과 습관, 즉 심리적으로 '나'와 유사한 존재로 상정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확보했어야 한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늑 인간이 '나'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한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데이비슨은 해당 단어의 의미가 형성된 언어 공동체의 삶을 늑 인간이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므로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비슨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생활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6. 답 ③

[정답 해설]

㉠(로크)은 기억을 통해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는 기억 이론을 제안하여 기억의 연속성을 통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기억과 인격 동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칸트)은 동일한 인격을 가진 두 개별자이기 때문에 기억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기억과 인격 동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입장·견해 파악 & 비교·대조

[오답 해설]

- ① ㉠은 기억을 통해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는 기억 이론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억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른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인격 동일성 문제를 살핀 것은 아니다.
- ② ㉡은 기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나'가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한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함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은 기억의 연속성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인격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 ④ ㉠은 인격 동일성이 성립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 주장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 역시 인격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⑤ ㉠은 신체가 갑자기 달라지더라도 '나'가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가진 장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또한, ㉡ 역시 기억의 변화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가진 장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7. 답 ⑤

[정답 해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파팓은 기억이나 신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만을 받아들였을 때, 과거의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서 현재의 '나'가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의 친구의 몸에 '나'가 있으므로, 그 외 사람의 몸에는 '나'가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비교·대조

[오답 해설]

-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나'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를 가졌음에도 '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황 1]에서 컴퓨터에 복제된 인격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기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황 2]에서 늘 인간이 '나'의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나'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파팓은 '나'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신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의 복제 인간들은 과거의 '나'와 기억을 공유하는 등 심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이라고 볼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인격이 단순한 물리적, 심리적 특성이 아닌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황 3]에서 친구의 신체에 '나'가 들어있을지라도 '나'라는 인격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8. 답 ③

[정답 해설]

[보기] 해설

- 수적 동일성: 어떤 대상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여 하나로 세어지며, 대상이 변화해도 유지됨
(㉡ 볼 붙이기 전 양초와 녹은 양초)
- 질적 동일성: 둘 이상의 대상이 가진 속성이나 성질이 서로 동일함. 하나의 대상은 다른 대상과도 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음
(㉡ 속성이 동일하게 생산된 두 볼펜)

(가)의 4문단에 따르면, 파팓은 '나'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신체를 기반으로 '나'의 복제 인간 여러 명을 만들었을 때, 이 복제 인간들은 모두 '나'의 기억을 단절 없이 가진다는 점에서 모두 '나'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파팓은 기억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보기)와 지문의 유기적 연결

[오답 해설]

-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나'의 신체가 갑자기 달라지더라도 '나'가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나'와 성인이 된 '나'는 신체의 변화에도 기억의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수적 동일성을 지닐 것이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기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대상이 질적 동일성(기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대상이 수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동일한 인격)는 사실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④ 로크는 기억의 연속성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이비슨은 늘 인간 사고 실험을 통해, 물질적 복제물인 늘 인간이 생겨났을 때, 아무도 '나'와 늘 인간을 구분할 수 없더라도 '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과정을 늘 인간이 경험한 것은 아니므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둘에 따르면 '나'의 복제물인 늘 인간은 '나'와 질적 동일성은 지니지만, 동일하여 하나로 세어진다는 수적 동일성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 ⑤ 칸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기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데이비슨은 어떤 개별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와 구분되지 않아도, 개별자가 '나'와 동일한 인격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둘에 따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수적 동일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기억과 같은 유사한 심리적 상태 외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9. 답 ④

[정답 해설]

지문의 '알아보다'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면하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의 의미이므로, 이를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시작되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가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작되다'의 뜻을 가진 '비롯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제작하다'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다'의 의미이므로, '만들다'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이므로, '생겨나다'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성립하다'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이루어지다'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스피드 정답

10. ④

11. ⑤

12. ②

13. ③

10. 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통화 옵션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반환되지 않는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한다. 따라서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더라도 프리미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기본 정보 파악

[오답 해설]

- ①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 재화 거래 과정, 해외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과정 모두에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불할 때, 수령할 때 모두 환위험은 발생할 수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환위험은 무역 거래를 위촉시키거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돈의 실제 가치가 예상과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받는 금액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늘어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불확정적이고 투자 성과가 환율 변동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환위험 헤지 수단을 조합하는 등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1. 답 ⑤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선도 계약)은 당사자들이 거래 당시에 합의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편 ㉡(통화 선물 계약)은 ㉠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진 환율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즉, ㉠과 ㉡ 모두 계약 당사자가 미래에 교환하려고 하는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애초에 지문을 독해할 때 ㉠(선도 계약)과, 그것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한 ㉡(통화 선물 계약)을 서로 비교·대조했어야 쉽게 풀 수 있다. 특히 통화 선물 계약은 선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했다.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선도 계약과 통화 선물 계약의 공통점을 다소 명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충분히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비교·대조 작업에는 항상 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 19학년도 수능 '동서양의 우주론' 3문단

지문: 그러나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브라헤와의 차이점**).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 **브라헤와의 공통점**)하여...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비교·대조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이나 ㉡은 모두 미래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확정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환율이 유리하게 변동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환율로 거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환위험 헤지 계약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즉, ㉠과 ㉡ 모두 미래 환율이 계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동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은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 거래 당시에 합의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통화를 교환하고자 할 때는 ㉠의 체결 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 ㉡을 이용하면 ㉠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통화 선물은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상대방을 찾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국제 시장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축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은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 거래 당시에 합의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편 통화 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상대방을 찾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은 ㉡과 달리 직접 적절한 계약 상대방을 찾아야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을 거래할 때 거래소는 ㉡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 증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과 달리 ㉡은 거래소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가 미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12. 답 ②

[정답 해설]

[〈보기〉 분석]

1년 동안 투자한 결과 800달러의 투자 수익을 얻었을 때, 각 환위험 헤지 방법에 따른 [달러 → 원화]의 실제 환산 수익 크기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때, 통화 선물 계약의 경우에는 미리 계약한 환율을 적용하며, 헤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후 투자 수익 환산 시점의 최종 환율을 적용, 롤링 헤지의 경우에는 각 분기에 계약한 환율 수준을 적용한다.
이제 각 환위험 헤지 방법에 따른 실제 환산 수익 크기를 계산해 보자.

1) 통화 선물 계약

통화 선물 계약 환율이 1,300원/달러이므로,
 $800 \times 1,300 = 1,040,000$
즉, 실제 환산 수익은 1,040,000원이다.

2) 통화 선물 계약과 롤링 헤지 50%씩 혼합형

800달러의 50%인 400달러에 대한 통화 선물 계약 환율은 1,300원이다.
나머지 50%는 각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눈 수익인 100달러에 분기별 롤링 헤지 계약 환율을 적용한 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된다.
 $(400 \times 1,300) + (100 \times 1,300 + 100 \times 1,200 + 100 \times 1,000 + 100 \times 1,200)$
 $= 999,000$
즉, 실제 환산 수익은 999,000원이다.

3) 롤링 헤지

$(200 \times 1,300) + (200 \times 1,200) + (200 \times 1,000) + (200 \times 1,200) = 940,000$
즉, 실제 환산 수익은 940,000원이다.

4) 헤지하지 않음

1년 후 투자 수익 환산 시점의 최종 환율: 1,200원/달러이므로,
 $800 \times 1,200 = 960,000$
즉, 실제 환산 수익은 960,000원이다.

실제 환산 수익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 선물 계약 > 혼합형 > 헤지하지 않음 > 롤링 헤지

따라서 정답은 ②(A: 통화 선물 계약, B: 혼합형, C: 롤링 헤지)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지문 내용과 〈보기〉의 유기적 연결

13. 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통화 옵션은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다른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화 옵션 매입자는 반환되지 않는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한다. 이때 프리미엄은 옵션이 행사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미래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전에 지급한 프리미엄의 가치와 실제 환차익을 비교하여 통화 옵션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통화 옵션을 보유한 당사자는 권리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지 않다면, 통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보기〉 분석]

- A사: 3개월 후 미국 기업에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 B사: 3개월 후 미국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받을 것이다.

A사가 현재 환율에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을 때,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3개월 후에는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재 환율로 달러를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환율 개념은 이미 평가원 기출에서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22학년도 수능 '트리핀 딜레마' 지문에서도 환율 개념은 다소 불친절하게 서술된 바 있다. 기출에 이미 등장한 개념은 배경지식으로 썰어 두는 습관을 들이자.

- 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의 사례로 살펴 본 정책 수단의 결정' 3문단, 4문단
3문단: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4문단: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 22학년도 수능 '트리핀 딜레마' 2문단, 3문단
2문단: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3문단: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지문 내용과 〈보기〉의 유기적 연결

[오답 해설]

- ① A사는 3개월 후 예상되는 환율보다 낮은 환율(원화 가치 상승)에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환율이 높아져 원화 가치가 하락(달러가 비싸짐)하더라도, 달러를 실제 환율보다는 낮은 환율에 매수(달러를 실제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게 된다.
- ② B사는 3개월 후 미국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받을 것이므로, 3개월 후 예상되는 환율보다 높은 환율(달러 가치 상승)에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환율이 높아져 원화 가치가 하락(달러가 비싸짐)하더라도, 달러를 실제 환율보다는 높은 환율에 매도(달러를 실제보다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된다.
- ③ B사가 옵션을 매입할 당시의 환율에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다면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때, 달러를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B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재 환율을 이용해 통화를 교환하려 할 것이다.
- ⑤ 3개월 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였다면, A사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B사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⑤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두 기업 모두 프리미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작더라도, 환헤지로 얻는 효과보다 프리미엄 부담이 더 크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스피드 정답

14. ②

15. ⑤

16. ②

17. ④

14. 답 ②

[정답 해설]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인 RESS 공정과 SAS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RESS 공정에서는 3문단 마지막에서 명확하게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SAS 공정에서는 한계점을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글 전체의 흐름 파악

[오답 해설]

- ① 이 지문은 미세 입자 제조 기술 중 결정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결정화 기술은 혼합물 용액에서 용해도 변화를 유발하여 원하는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기술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용해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기본 원리를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의 성능과 관련된 두 단계인 핵 생성 단계, 결정 성장 단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 두 단계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초임계 유체는 이상 기체에 가까운 희박한 밀도 상태에서 액체 용매에 가까운 고밀도 상태까지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체라고 하였으며,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초임계 유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체이다.
- ⑤ 1문단에서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했으며, 포화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용질이 자신의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5. 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ASES 공정에서는 용액을 액적으로 나누어 주입하게 된다. 이는 용매와 초임계 유체가 맞닿은 면적을 넓힘으로써 물질 전달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5문단에 따르면, ASES 공정에서 물질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 결정 성장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문단 간 연결
&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RESS 공정은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미세 입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용질을 초임계 유체에 용해시킨다. 포화 용액에 반응매를 첨가하는 공정은 RESS 공정이 아닌 ASES 공정에 대한 설명이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결정 성장 단계는 '입자의 수'가 아닌 '입자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입자의 수를 늘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 SAS 공정은 초임계 유체를 '반용매'로 사용한다.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용매에는 녹지 않고 용질에는 녹는다는 표현은 용매와 용질을 반대로 뒤집은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RESS 공정은 높은 밀도의 초임계 유체에 용해시킨 후 급속히 팽창시켜 석출한다. 즉, 초임계 유체를 액체 용매에 가까운 밀도가 아닌 이상 기체에 가까운 밀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16. 답 ②

[정답 해설]

1문단에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했다. 용질 자체의 용해도가 높으면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많으며, 같은 양의 용질을 녹일 때 그렇게 많은 용매가 필요하지 않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용질 자체의 용해도가 낮으면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적으며, 적은 양의 입자를 만들 때에도 더 많은 용매를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용질보다 더 많은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여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 이유와 가장 어울리는 것은 ②번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추론 & 문단 간 연결

[오답 해설]

- ① 초임계 유체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희박한 밀도부터 고밀도까지 연속적인 상태의 변화가 가능하다.
- ③ RESS 공정은 초임계 유체가 반응매가 아닌 용매로 사용되므로, 선지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 ④ RESS 공정이 좁은 노즐을 통해 용액을 급속히 팽창시켜 용질이 용해력을 잃고 석출되도록 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용질의 용해도가 낮은 경우 용매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⑤ RESS 공정에서, 용질의 과포화된 정도가 높을수록 핵 생성이 우세하게 일어나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오답 보충 설명]

①, ③, ⑤는 선지의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제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④의 경우 선지의 표현으로만 본다면 지문의 내용 상 옳은 표현이지만, 범주상 올바르게 않기 때문에 오답이라는 점에 유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17. 답 ④

[정답 해설]

A 연구소는 RESS 공정을 사용하고, B 연구소는 ASES 공정을 사용한다. A 연구소는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며, 초임계 유체가 용질을 녹일 수 있어야 한다. 반면 B 연구소는 초임계 유체를 반응매로 사용하며, 초임계 유체가 용질에 녹지 않고 용매에 녹아야 한다. 한편, ICS는 미세 입자 제조 기술의 대상이 되는 용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A 연구소의 미세 입자 제조 기술은 B 연구소의 기술과 달리 용질인 ICS를 녹이는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다. 또한 A 연구소는 RESS 공정을 이용해 기존보다 ICS의 크기를 크게 하였다. 이는 기존보다 용질이 과포화된 정도를 낮추어 결정 성장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입자의 크기를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정 성장이 아닌 핵 생성을 우세하게 키웠을 때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관계 파악 & 〈보기〉와 연결 짓기

[오답 해설]

- ① A 연구소는 RESS 공정을 사용하고, ICS의 크기를 늘렸다. ICS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용질의 과포화된 정도를 낮추어 결정 성장 단계가 우세하게 작용해야 한다.
- ② B 연구소는 ASES 공정을 사용하고, ICS의 크기를 줄였다. ICS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물질 전달 속도를 낮추어 핵 생성 단계가 우세하게 작용해야 한다.
- ③ 용매에 용질을 추가로 투입했다는 말은 용질의 농도를 높인 것에 해당한다. 용질의 농도를 높이면 물질 전달 속도가 빨라져 결정 성장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ICS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ASES 공정 사용 후 2 μ m ICS보다 입자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 ⑤ A 연구소는 RESS 공정을 사용하고, RESS 공정에서 사용하는 노즐은 용액을 급속히 팽창시키는 역할이다. B 연구소는 ASES 공정을 사용하며, ASES 공정에서 사용하는 노즐은 용액을 결정화 기기 내부에 주입하는 역할이다. 노즐이 각각 용액을 팽창시키거나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한편 B 연구소는 ASES 공정을 사용하므로 주입된 용액을 작은 덩어리인 액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스피드 정답

18. ①

19. ⑤

20. ②

21. ③

18. 답 ①

[정답 해설]

대북이가 '실지로 내려가서 보고 사정을 듣고 온' 것에 대해 윤 직원 영감은 '소작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엄살로 돌리지 않는다. 이로 보아 윤 직원 영감은 흥년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소작인들이 흥년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윤 직원 영감이 수해 사실은 인정해도 내밀 배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윤 직원 영감은 단지 흥년을 이유로 '소작료를 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태도 · 반응 파악

[오답 해설]

- ② 윤 직원 영감은 수해로 흥년이 들어어도 계약에 따라 '선불인 만큼 소작인은 정한 대로 소작료를 물어야 경우가 옳다며 소작료를 깎아주지 않으려 한다. 또한 '풍년이 들어서 벼가 월등 많이 나는 해'라고 해도 '처음 정한 값보다 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즉, 윤 직원 영감은 계약을 통해 선불로 정한 소작료를 어떤 이유에서든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흥년이 들었다고 소작료를 삭감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침말'이라며 여러 번 되묻는다. 그에 대해 여름방학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긴 했'다는 아들 윤 주사의 말을 듣고 '그러머년 침말이구나!'와 같이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처 죽일 놈'이라며 땅을 치며 격분하고 있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화적패'와 '부랑당' 같은 수령들이 있던 세상이 아니라 '거리 거리 일본 순사'가 있는 현재에 대해서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고 표현하며 과거와 다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대북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윤 직원 영감과' 함께 '금년' 추수에 대해 '노상 걱정'을 한다. 이는 '전라도에 수해가 약간 있었'던 탓에 '예전만치 추수를 못 하는 금년 상황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감해 달라고 하지만, 대북과 윤 직원 영감은 '어떻게 하면 묘한 꾀를 써서 소작인들을 꼼짝 못 하게 하여 웅근 소작료를 받을까' 고민한다. 따라서 윤 직원 영감이 대북과 함께 줄어든 벼 수확량을 걱정하며 소작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강구한다고 볼 수 있다.

19. 답 ⑤

[정답 해설]

[E]는 윤 직원 영감이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때 '가족들'은 윤 직원 영감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구의 빛'을 띠고 있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모여 선 가족들'과 같이 여러 인물을 명시한 것은 맞지만 중심인물의 행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서술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A]에서 수해를 사실적으로 확인했던 '대북이'의 과거 행적을 밝히고 '윤 직원 영감이 수해 사실은 인정해도 내밀 배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윤 직원 영감'의 입장을 서술자가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지문의 등장 인물인 대북이와 윤 직원 영감의 지각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의 주체(작품 밖의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작품 내의 인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B]에서 서술자는 '매우 지당한 주장입니다'를 통해, 소작 계약에서 정한 소작료를 요구하는 윤 직원 영감의 의견을 타당하게 여기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에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존재는 외부 오랑캐가 아닌 진시황의 자식 '호해'였다는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진시황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진시황은 윤 직원 영감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윤 직원 영감이 그토록 아꼈던 손자 종학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서술자는 진시황을 연상시키는 상황에 놓인 윤 직원 영감이 진시황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윤 직원 영감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D]에서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이 '물을 친 듯이' 조용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물을 친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위치한 공간(방 안)의 정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답 ②

[정답 해설]

㉠(한 가지 사실)은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이다. 윤 직원 영감은 이 사실에 대해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워한다. 이러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 윤 직원 영감은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낸 손자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쳐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인 중학이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지 않고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하는 중학의 삶의 자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므로 적절하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태도 · 반응 파악

[오답 해설]

- ① ㉠은 윤 직원 영감이 중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되므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윤 직원 영감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여 위기감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윤 직원 영감이 윤 주사가 전한 정보와 그의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밝혀낸 사건의 진상과는 거리가 멀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여기며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을 통해 중심인물이 부조리한 시대적 현실을 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기 보다는, 중학의 삶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윤 직원 영감이 ㉠에 의해 중학이를 '쳐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인간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윤 직원 영감은 윤 주사가 전한 정보와 그의 말을 통해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진 의문이 확신으로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으로 인해 윤 직원 영감과 중학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긴장감이 완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21. 답 ③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평천하」의 인물(윤 직원 영감):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긍정하는 봉건적 가치관과 일제 강점기 현실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가짐
- 1) 봉건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
- 2) 시대착오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식민 권력에 편승하려 하고, 불의한 세력에 연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임
- 인물의 그릇된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통해 독자들이 당대 자주 계층을 비판적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됨

윤 직원 영감은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소작료를 받고 내 맘대로 소작을 옮기는 것에 대해 '도며 군이며 경찰이 간섭'하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한다. 따라서 윤 직원 영감이 '도나 군이나 경찰의 권유며 간섭'에 항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불의한 세력과 연합하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손해를 끼치는 세력과 얽히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보기>와 관련짓기 & 태도 · 반응 파악

[오답 해설]

- ① 윤 직원 영감의 눈은 수해로 인해 흉년이 든다. 이에 대해 윤 직원 영감은 '흉년 핑계를 대고서 소작료를 감해 달라'는 소작인들의 요구를 '공연한 때'로 생각한다. '흉년이 들어서 벼가 월등 많이 나는 해'에 소작료를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한 대로 소작료를 물어야' 옳다는 이유에서다. 인물이 소작인들의 형편은 외면한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윤 직원 영감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소작료를 깎아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윤 직원 영감은 농지령이나 소작 조정령 등의 법률에 대해 '천하의 긴장은 법'이라고 칭하며 '성가시고 뇌폴스려'워 하고 있다. 이는 곧 윤 직원 영감이 새로 마련된 법으로 인해 '소작인 놈들이 건방지게 굴'고 '흉년이 들든지 하면 소작료를 감해 내라' 하며, 자신에게 '소작료를 올리'거나 '소작을 떼어 옮기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인물이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긍정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이러한 윤 직원 영감의 모습을 통해 인물의 봉건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경찰 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덩다 경찰서에 잡'히나며 분통을 터트린다. 작품 내 인물이 가족 구성원을 매개로 식민 권력에 편승하려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불의한 세력과 연합하려는 면모를 보이나, 이와 관련된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보여 준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손자를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족 구성원인 중학을 매개로 식민 권력에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권력층이 꺼리는 '사회주의'를 중학이가 하는 바람에 권력에 편승하려던 윤 직원 영감의 그릇된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윤 직원 영감은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거리거리 일본 순사'가 '공명헌 정사'를 봐주고 '조선 놈 보호하여' 주는 '태평천하'에 왜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했는지 의문 섞인 분통을 터트린다. 일제 강점기 현실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지닌 자주 계층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러한 윤 직원 영감의 태도에서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드 정답

22. ③

23. ②

24. ④

25. ①

26. ⑤

22. 답 ③

[정답 해설]

(가)의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에서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순이'라는 대상을 떠나 보내는 마음과 그로 인한 슬픔의 정서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밤이 깊어갈수록 /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힘든 현실 속에서도 고통을 받는 대상들을 포용하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다)에서는 '한 사람이 "이것은 바로 산이다." 하면 모두들 산으로 여기고, 돌이 지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와 '한 사람이, "이것은 바로 돌이다." 하면, 모두들 돌로 여기고 돌이 산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에서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사물의 외재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를 모두 중시하는 인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표현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겨울과 이별의 현실을 상징하는 '눈'과, 봄과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꽃'이라는 대조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그의 돌', '그의 장승' / '채찍', '칼자국'과 같은 대조적 소재를 활용하여 부정적 세태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에서 '가산'과 '진산'이라는 대조적 명칭을 언급하는 것을 대조적 소재를 활용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성 공과 달리 대상의 자성만을 반영하여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있다.
- ② (가)에서는 '창밖',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이 언급되고 있으나, 화자는 '방 안'에 머무르고 있기에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나)에서는 화자가 '우리'가 현재 있는 공간과 '그'가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그'가 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에서는 '별당', '송산', '화산', '남산' 등의 공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는 '눈이 녹고' '꽃이 피게 되는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에 주목하여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겠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밤이 깊어갈수록 /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로 가야만 한다 /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등에서 현실 극복의 지가 드러나고 있지만,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에서는 '우뚝 높고 크게 솟은 것은 ~ 누가 그것이 물인 줄을 모르랴', '산은 본시 흙이 있는 법' 등을,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서는 '눈이 자꾸 내려' '발자국'을 덮어 버리는 계절 이후 '눈이 녹고'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는' 계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눈이 녹는 계절'은 화자가 가정된 상황이므로 계절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도 계절적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에게로 가야만 한다 /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의지적 태도를 거듭 드러내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23. 답 ②

[정답 해설]

반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 윤동주의 시에서 '순이' = 시인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대상
- '순이'와 이별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에 대한 여러 정서적 반응을 '눈'에 투영하여 나타냄
- 흘러가 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
- 유년의 기억을 토대로 자아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드러냄

화자가 '순이'와 이별하는 상황에서 '방 안'에도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다'는 표현은, <보기>를 참고하면 '순이'와 이별하는 상황을 통해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눈'에 투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이'는 화자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대상이며,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순이'와의 이별을 회상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린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등을 관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와 같이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이별을 회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태도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순이가 떠나는 '아침'의 '창밖'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함박눈'은 '말 못 할 마음'으로 내리고 '슬픈 것처럼' 덮여 '내 쪼그만 발자국'을 '따라갈 수도 없게' 만드는 대상이다. <보기>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대상인 '순이'와 이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순이'가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으나 이제 '편지'를 쓰더라도 '순이'가 '가는 곳'을 몰라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기>에서 '순이'가 시인의 유년 시절을 상징한다고 한 것과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 것을 참고하면, '순이'에게 전할 수 없는 '편지'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단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화자는 '눈이 자꾸 내려 덮여' 순이의 '쪼그만 발자국'을 '따라갈 수도 없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게 되며, 그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는 유년 시절을 토대로 하여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수 있을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화자는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화자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자아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자아를 정립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순이'가 떠날 때 내리던 '눈'이 '발자국을 찾아'나선 화자의 '마음'에 내린다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화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24. 답 ④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6학년도 9월 모의 「경사」, 「달빛 체질」, 「용연 사기」 2번 문제의 출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해당 기출에서는 정답 선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연을 연결하여 화자가 느끼는 정서·태도와 시적 대상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문항에서는 정답 선지에서 여러 연을 연결하여 시적 대상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판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화자는 [A]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하고, [B]에서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는 당위적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C]에서 '그의 돌이 되기 위해', '그의 장승이 되기 위해'를 통해 화자가 그러한 당위적 태도를 보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와 [B]에서 화자가 보인 당위적 태도는 [C]에서 '그의 돌'과 '장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시어 간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A]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하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와 '잠 시라도 잊었을 때' 채찍 아래서 '우리를 부르는 뜨거운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이 '뜨거운 소리'는 화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들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가기를 멈췄을 때', '가기를 포기했을 때' 그이의 '아픈 발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즉, '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은 '아픈 발소리를 듣게 되는 조건일 뿐, 그 '아픈 발소리'에 대한 예감이 '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화자는 볼 수 없으며, 화자는 '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당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③ [C]에서 '그에게로 가야만 한다'는 화자의 염원은 '부르다가 쓰러져 그의 돌이 되고, '가다가 멈춰 서서 그의 장승이 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부르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멈춰 서'는 난관을 극복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화자는 그러한 상황조차 감내하며 그에게로 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C]에서 '형제의 찬 손'은 화자를 포함한 '우리'의 비극적 처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 [A]에서 '채찍'과 [B]에서 '칼자욱'에 시달리는 대상은 '그이'이며, '그이'는 '우리'로부터 이름이 불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C]에서 '형제의 찬 손'이 억압하는 대상은 [A]에서 '채찍'과 [B]에서 '칼자욱'에 시달리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의 비극적 처지를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25. 답 ①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4학년도 수능 「문」, 「가자가 담을 넘을 때」, 「잊음을 논함」 4번 문제의 출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문음이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지문: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해당 기출에서는 주장과 주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적 물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요구했다. ㉢은 앞선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지적하는 물음이라는 점에서 정답 선지가 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성 공이 만든 산을 두고 진짜 산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고 여기면서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성 공이 별당에 만든 ㉠의 이름을 '석가산'으로 지은 이유와 의미, 그 안에 내포된 성 공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성 공이 만든 산이 '우뚝 높고 솟아 산과 다름 없으니 진짜 산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는 말에 대해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라는 설의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볼 때 이는 글쓴이가 성 공이 만든 ㉠을 '진짜 산'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가산으로 이름을 지어 진산이 아니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더욱이 그 ㉠을 진짜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수필에서의 심리 파악

[오답 해설]

- ② (다)에서 글쓴이는 석가산이 돌이면서 산이고, 산이면서 돌이라고 여기며, ㉠을 단순히 산이나 돌 중 하나로 이름짓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성 공이 ㉠을 석가산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돌과 산이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점과 같은 것 같아도 다른 점을 모두 밝혀 명칭과 실상을 조화시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 공이 ㉠을 '석가산'이라고 명명한 것은 산과 돌의 서로 다른 자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이름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다.
- ③ (다)에서 글쓴이는 성 공이 ㉠을 '가짜 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 성 공이 학문이 해박하여 작은 것은 산이라 할 수 없고 돌만으로는 산이라 할 수 없다는 물리적 측면에 관해 이미 성 공이 세밀히 연구하고 분석했으니, '가산'이라는 이름을 물리적 측면만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 공이 ㉠을 '가짜 산'이라고 명명한 뜻이 크기가 작거나 돌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 ④ (다)에서 글쓴이는 소로천이 ㉠을 '높다란 저 남산'이라고 이른 것에 대해, 실상은 돌뿐이지만 높이 쌓여 마치 산처럼 되니 산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산이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을 산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이름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소로천이 ㉠을 '산'으로만 인식한 것을 이름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 ⑤ (다)에서 글쓴이는 자사가 ㉠을 '커다란 돌무더기'라고 한 것에 대해, 높이 쌓여 마치 산처럼 되었지만 실상은 돌뿐이니 돌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한 사람이 '이것은 돌이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을 돌로 여기는 것에 대해, 돌이 산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사가 ㉠을 '돌'로만 인식한 것을 돌이 산이 되는 원리를 간과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26. 답 ⑤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 대상을 호명하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드러냄
- (나)의 화자: '우리'로 표상되는 민족이 직면한 험난한 상황에 맞서 동포의 이름을 호명해야 하는 의무 →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도달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 (다): 대상을 명명하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드러냄
- (다)의 글쓴이:
 - 대상에 내재된 본질만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성 공'의 별당에 놓인 대상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편향된 인식 지적
 - 피상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의 중요성 강조

(나)에서 '누구인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의 이름을 끊임없이 호명해야 하는 의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산처럼 혈기가 있는 물건 치고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산의 물리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성 공이 학문에 해박하여 이런 물리적 측면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서, 별당에 놓인 대상에 대해 '가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물리적 측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산처럼 혈기가 있는 물건 치고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없'으므로, 성 공의 별당에 놓인 대상은 돌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산'이라고 명명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성 공은 '가산'이라고 명명할 때 물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 공이 별당에 놓인 대상을 '가산'으로 명명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성 공은 돌이면서 산이고, 산이면서 돌이라는 점을 모두 밝혀 독립된 대상의 자성에 매몰되지 않고 명칭과 실상을 조화시키기 위해 '가산'(석가산)으로 명명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 · 태도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나)의 화자는 '형제의 찬 손'이 '대낮의 숨통을 조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조인 목을 뽑아' '그에게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민족이 동포를 위해 직면한 험난한 상황에 맞서야 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참 것을 참 것이라' 할 때 '일정이 없는 묘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어지는 '산'과 '물'의 예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대상의 내재된 본질만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태도에 대해 글쓴이가 드러내는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다)에서 '세상의 학자들이 명칭과 실상의 과도한 구별에 현혹'되어, 누군가 산이라 하면 모두 산으로 여기고 돌이라 하면 돌로 여기는 태도를 각각 이름만 알고 실상을 모르는 것, 그 실상만 고집하고 산이라 불릴 수 있는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이름과 실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된 인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우리'로 표상되는 민족이 직면한 험난한 상황에 맞서 고통받는 동포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에게 도달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성 공이 돌과 산이 다른 것 같아도 같은 점과 같은 것 같아도 다른 점을 밝힌 것은 '명칭과 실상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피상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피드 정답

27. ②

28. ②

29. ③

30. ⑤

27. 답 ②

[정답 해설]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발화, 또는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의 길이가 길수록 더욱 범주를 구분해가며 대화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역순행적 구성이나 과거 회상을 통해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방식인 현대소설과는 달리,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잘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 지문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한 과거 사건의 정보가 여러 차례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속향의 탄식: '저는 다섯 살에 부모를 잃었으며, ~ 억울한 악명을 얻어 쫓겨 나게 되었으니'
- 2) 선녀의 물음에 대한 용녀의 대답: '옛날 사해의 용왕이 ~ 아직까지 그 은혜를 감지 못하고 있었나이다.'
'이에 용왕이 ~ 남자를 구했나이다.'
- 3) 사향의 변명에 대한 종의 대답: '너는 그간 ~ 거짓으로 아뢰었노라.'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서술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A] 즉 속향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독백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속향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이 지문에는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물결이 뒤집혀 끓는 듯하였다', '하늘이 무너지듯 천지가 진동했으며' 등의 부분에서 과장된 표현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물 간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 ④ 해당 지문에서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한 전개는 드러나지 않는다. 고전소설에서 꿈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지문에서 확인된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집중해서 읽어두도록 하자.
- ⑤ 해당 지문에서는 '속향이 한참을 통곡하며 우니 ~ 온갖 초목과 짐승들도 다 슬퍼하는 듯하더라'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속향의 슬픔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28. 답 ②

[정답 해설]

'속향의 부친'은 바다에서 쫓겨나 어부의 그물에 걸린 '용녀'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이에 '아직까지 그 은혜를 감지 못하고 있었'으며 옥황상제와 용왕의 말씀을 듣고 '침이 김 상서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자원해서 남자를 구했'다는 '용녀'의 발화를 고려하면, '속향의 부친'이 '용녀'의 목숨을 살린 사건은 '용녀'로 하여금 '속향'을 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대화의 내용 &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선녀들의 발화에 따르면 선녀들은 '월궁항아'의 명을 받들어 '속향'을 구하려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향'이 천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지문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옥황상제'와 '월궁항아'가 이를 두고 대립하고 있지 않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보기

• 23학년도 6월 모의 「소현성록」 4번 문제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각각의 사건에서 상서와 양 부인의 대처 방식이 상이할 뿐, 처벌 방법에 대해 상서와 양 부인 두 인물 간의 대립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③ '선녀들이' 속향에게 건네는 발화 중 '다행히도 용녀가 남자를 구했나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물에 빠진 속향을 구한 것은 '선녀들이' 아닌 '용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녀'가 속향을 구한 이후에 선녀들의 연접주에 오른 것이지, '선녀들이' '용녀'를 배에 태우고 속향을 구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선후 OUT.
- ④ '장 승상'이 흰 누비옷을 입은 '천승'을 보고 놀라고, 천승의 말을 듣고는 '내 집에는 특별히 옥석을 가릴 일이 없으니, 스님께서는 공연히 오셨나이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아, '장 승상'이 '천승'의 부탁에 거절을 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용녀'가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시녀'를 보호하려다 '용왕'에 의해 바다로 쫓겨났음을 선녀의 물음에 대한 용녀의 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용녀'가 어부의 그물에 걸린 것을 속향의 부친이 구해주었다. 이는 속향이 물에 빠지기 이전의 사건으로, '용녀'는 다시 용궁으로 복귀한 뒤에 속향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것을 듣고 자원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속향을 구하려 간다. 다시 말해, 용녀는 시녀를 보호하려다 용왕에 의해 쫓겨난 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걸리고 속향의 부친에 의해 살아났을 뿐, 그곳에서 물에 빠진 속향을 발견하거나 구하고 있지 않다.

29. 답 ③

[정답 해설]

[C]에서 천승은 숙향에게 누명을 씌운 사향에게 '숙향을 구박하고 내쫓았다'며 질책한다. 그러나 [A]의 숙향의 발화 중 '의지할 곳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된 것은 '다섯 살에 부모를 잃었기' 때문으로, 장 승상 부인을 만나 의탁하고 사향으로 인해 누명을 쓰기 이전 과거의 사건이다. 즉 사건의 범주와 인과 관계가 잘못 연결된 선지로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대화의 내용 &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A]에서 숙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악명을 얻어 쫓겨'났으며 탄식하고 있다. 이후 [B]의 사향의 발화와 그를 지적하는 [C]의 종의 발화를 함께 고려하면, 숙향이 언급한 '억울한 악명'은 [B]의 '도둑질했다'가 들켰다고 사향이 숙향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B]에서 사향은 천승을 두려워하며 '미친 중놈'이라 비난하고, '어지러운 말'로 변명을 한다며 그를 힐난한다. 이는 천승이 '억울한 낭자(숙향)의 누명을 벗기고 악녀를 처단코자' 한다는 것과 [C]에서 천승이 '지난 삼월 십삼일 영춘당에서 잔치할 때' 사향이 도둑질을 하고 숙향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자신이 꾸민 일이 밝혀질 것을 사향이 두려워하며 천승을 막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B]에서 사향이 거론한 '숙향의 행실'에 관한 진상은 [C]의 천승의 발화를 통해 밝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A]의 내용대로 '억울한 악명을 얻어 쫓겨나'게 된 숙향이 '푸른 하늘과 일월성신'에게 장 승상 님 사람들이 숙향 자신의 결백을 알게 되기를 바란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⑤ [B]에서 사향은 도둑질을 한 숙향을 뒤쫓아가 여러 번 불렀으나 숙향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에서 천승은 부인이 '숙향을 찾고자' 불렀을 것을 사향에게 명하였음에도 사향이 이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아뢰며 '숙향을 찾고자' 했던 부인의 시도를 저지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향의 불응으로 인해 [A]의 숙향의 독백과 같이 '(저를)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답 ⑤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4학년도 수능 「김원전」의 4번 문제의 출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해당 기출에서는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공주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자신(김원)의 계획대로' 이를 진행하였다며 주체를 왜곡한 정답 선지를 출제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행위와 계획의 주체를 잘못 연결한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되었다. 천승이 조력자로서 악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천승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옥황상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지, 천승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숙향전」: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 주인공의 삶
 - 천상계에서 예정된 계획대로 작중 서사 진행
 -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개입 → 주인공의 고난 극복
 - 서사적 흥미를 더함
 -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처벌받음
 - 권선징악의 교훈 전달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숙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주인공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서사는 천상계에서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천승은 장 승상 님에 방문하여 '저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천승이옵니다.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장 승상 님의 옥석을 가려 억울한 낭자(숙향)의 누명을 벗기고 악녀(사향)를 처단코자' 라고 말하며 방문한 목적을 밝힌다. 즉 <보기>의 설명과 같이 천승은 주인공인 숙향의 고난 극복을 돕는 조력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향의 '악행'에 대해 '천벌을 내리'어 독자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천승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이루어지는 행위로, 천승이 '자신의 계획대로' 악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전소설에서는 항상 인물의 발화의 내용을 통해 인물의 의도, 내면 심리 또는 과거 사건 등과 같은 요지를 범주를 구분해가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해당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대화의 내용 파악 (주체 확인)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숙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자신이 전생애 '하늘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행을 겪게 '하'나며 한탄한다. 이때 숙향은 자신의 삶에 하늘이 관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주인공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용녀는 물에 빠진 '낭자(숙향)를 구'하고, 천승은 사향으로 인해 악명을 얻고 쫓겨난 '억울한 낭자의 누명을 벗기'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용녀의 발화에 따르면 용왕이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용궁의 관원에게 '인간 세상의 물에 숙향이 빠지거든 평안하게 구하'라고 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월적 세계의 인물이 지상계의 인물인 숙향을 구할 것을 명하는 것에서, <보기>의 내용과 같이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천승이 사향의 만행을 지적한 후, '수레를 공중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서고 이어서 '공중에서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날아'오는 것은, 조력자의 초월적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으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서사적 흥미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스피드 정답

31. ③

32. ④

33. ④

34. ⑤

31. 답 ③

[정답 해설]

(가)에서는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적을 헤치리라'와 같은 대목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왜적에게 침략당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풍설', '봄비'와 같은 부분에서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가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표현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적을 헤치리라'는 부분에서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② (가)의 '항복하면 안 죽이니 너를 굳이 섬멸하라'에서 가정적 진술이 활용되었지만, 대상에 대한 경외감과 무관하다. 아울러 (나)에서도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를 일종의 가정적 진술로 보더라도, 대상에 대한 경외감과 무관하다.
- ④ (가)에서는 '섬나라 오랑캐야'라고 하며 명시적 청자를 호명하여 '얼른 항복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도 '내 꿈아', '북쪽에서 온 사자야'와 같이 청자를 호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타국에 있는 세자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서는 '우국단심이야 어느 때에 잊겠는가', '집승 같은 왜구가 조금이라도 두려울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여러 번 활용되며 화자의 나라를 위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나, 화자의 반성적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도 '이역 풍성을 겪는 학기인들 잊을꼬냐', '임금과 나랏일 아는 것이 없으니 그 아니 좋을꼬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며 임금의 시련과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화자의 반성적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32. 답 ④

[정답 해설]

[B]에서 화자는 '동방의 문물' 즉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여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에서는 '똑같은 배'가 '배반이 남자하'게 풍류를 즐기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큰 칼, 긴 창'을 싣고서 전쟁을 위해 쓰이기도 하여 '그 속의 근심과 즐거움 서로 같지 못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같은 '배'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풍류를 즐기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전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을 뿐 '배'의 가치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태도 파악

[오답 해설]

- ① [A]에서 화자는 '하늘 맑고 바다 넓'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조각배'를 타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제일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 생애'를 '조각배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까'라고 하고 있다. 조각배가 없으면 자연을 즐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서 화자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조각배에 의존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국운이 불행하여 패전하고 왜적에게 차욕을 당하니'와 같이 언급하며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운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C]의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적을 헤치리라'와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 할꼬냐'에서 '섬나라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과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한편 '항복'을 권유하고 '우리 임금 성덕이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하며 상대와 공존하려는 자세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B]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에게 당한 '차욕'을 '백 가지 중 하나도 씻지 못했'다는 데에서 전쟁으로 인해 겪은 온갖 수모를 잊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C]에서 화자는 적에게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 되어' '어선에서 노래하고'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 종식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33. 답 ④

[정답 해설]

〈제8수〉에서 '구렁에 낫는 풀'은 '임금과 나랏일'을 아는 화자와 달리 '임금과 나랏일'을 몰라 '봄비에 절로' 길어지는 태평한 존재로 나타나며, 그와 대비되는 화자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고 있다. 한편,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과 '바람에 지나는 검줄'을 동일시함으로써 '갈 길 몰라' 한다는 공통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암울한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함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시어 간의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제7수〉에서 '이역 풍상을 겪는 학'가는 청나라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세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1수〉에서 화자가 꿈을 통해서 '학'가 선용을 친히 본 듯'하다는 것은 청나라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세자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세자들의 시련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다. 선후 OUT.
- ② 〈제2수〉의 '고국의 못 죽는 고산'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6수〉에서 화자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무신'이 많은데도 '조구리'와 같이 세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화친'에 대해서도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친'을 이룬 '무신'을 흠모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제7수〉에서 '시름 일정 많으려니'는 임금이 시련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근심에 싸여 있는 임금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제2수〉에서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고'와 같이 걱정하는 것은 임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역 풍상을 겪는 세자들을 걱정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 ⑤ 〈제8수〉에서 '그 아니 좋을쏘냐'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과 다르게 '임금과 나랏일'을 몰라 걱정이 없는 풀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는 대목이므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제10수〉에서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한다는 것은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 화자 자신의 시름을 달래려는 것이지, 나라가 처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34. 답 ⑤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해상을 방비하는 수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이후 왜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상황
- (나): 고향으로 낙향한 은자의 입장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들을 염려하는 상황
 - 공통점: 모두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임금을 곁을 떠난 처지이나 우국충정의 태도를 드러냄
 - 차이점: 화자가 주목하는 임금의 태도나 스스로 지향하는 삶의 방향

(가)에서 화자는 해상을 방비하는 수군의 입장으로, '전선'을 타는 전쟁 상황과 다르게 전쟁이 끝나 '어선에서 노래'를 부르고,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서 / 태평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평화를 소망하는 화자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칠실의 비가'는 중국 노나라의 신분이 낮은 여자가 캄캄한 방에서 나라를 근심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칠실의 비가'를 뉘라서 슬퍼'하는 것은 낙향한 은자의 입장인 화자가 나라를 걱정한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국가에 대한 우환을 떨쳐내려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국가에 대한 우환을 지속하고 있으며,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는 마음을 술을 통해 달래 보려고 하고 있을 뿐 나라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는 지향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보기〉와 관련짓기

& 정서 · 태도 파악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임금을 곁을 떠난 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신하의 몸'인 화자가 '궁달의 길이 달라' 임금을 '염에서 못 모시고 늙'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 임금을 곁을 떠나 있는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화자가 '하늘 밖에 떨어'져서 '어느 것이 서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임금을 곁을 떠나 있는 신하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 계산 복극성을 바라보'고 '근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보기〉를 참고할 때 '왜적에게 치욕을 당'한 상황에서 혼란한 현실과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심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임금과 나랏일'을 알지 못해 태평한 '풀'과 달리 시름을 겪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데, 이는 〈보기〉를 참고할 때 신하로서 국가와 군주를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화자가 '짐승 같은 왜구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가)에서 해상을 방비하는 수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왜적의 침략을 경계하는 상황이 드러난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수군으로서 왜적을 경계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는 '꿈'을 통해서 '학'가 선용을 친히 본 듯'하다며 세자를 떠올리고 있는데, 〈보기〉의 고향으로 낙향한 은자의 입장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들을 염려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는 설명을 참고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섬나라 오랑캐'에게 '항복'을 권하면서 '우리 임금 성덕이 함께 살기 원'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포섭하려는 임금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임의 시름'이 많을 것이라 말하며 '이역 풍상을 겪는 학'가 외에도 '이 밖의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신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병자호란 이후에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ME
MO**

개념어

인격 동일성, 데카르트, 합리론, 이원론, 영혼, 로크, 경험론, 기억, 라이프니츠, 칸트, 복수의 주관, 스트로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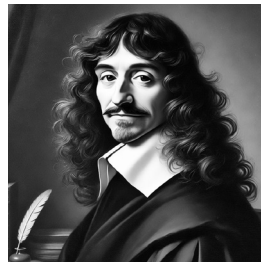
● 내가 어제의 나랑 같은 사람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은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건 꽤 자연스러워 보여. 우리는 어제 한 일을 기억하고 오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잖아. 그런데 이걸 철학적으로 따져 보면, 사람들이 '1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존재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쉽지 않아. 역사상 많은 철학자가 그와 같은 '인격 동일성 문제'에 관해 다양한 주장을 펼쳐왔어.

먼저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려면, 크게 두 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해. 하나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거나 연결 지을지에 대한 철학적 전통(데카르트의 이원론 등)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이나 정신 상태가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관점(경험론 · 심리학적 접근)이지. 이런 전제가 있어야 왜 데카르트가 영혼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는지, 또 로크가 기억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라이프니츠나 칸트가 이들 주장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보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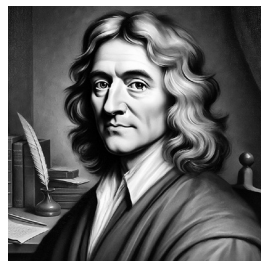
● 데카르트: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

데카르트는 합리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신체와 정신을 서로 다른 독립적 실체라고 봤어. 이걸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해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정신은 신체와 별개다"라는 주장이야. 이러한 관점에서 데카르트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결론짓지. 왜냐하면 몸이 없어도 생각(사유)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신체가 아닌 다른 실체, 즉 영혼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격 동일성은 영혼이 계속 같은 주체로 사유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고 봤어. 그래서 데카르트는 '사유의 동일성이 곧 인격 동일성을 보장한다'라는 논리를 세웠는데, 여기서 핵심 선행 개념은 바로 이원론과 영혼 개념이야. 철학사적으로 보자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은 명제를 통해, 자아를 정신(영혼)으로 환원시키는 전형적인 입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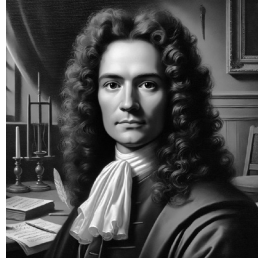
● 로크: 기억이 나를 만든다.

로크는 경험론 철학자야. 그는 데카르트와 달리 '신체와 정신은 별개'라는 이원론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대신 시간과 경험의 흐름이 인격 동일성을 만든다고 주장해.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생각을 '내 것'으로 기억하고 회상할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연결된다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로크는 기억을 인격 동일성의 핵심 축으로 놓았어. 그는 왕자의 의식이 구두 수선공의 신체에 옮겨 갔다고 할지라도, 그 의식이 과거 왕자로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몸이 달라져도 여전히 동일한 인격이라고 주장해. 로크가 '과거를 기억하는 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모든 인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경험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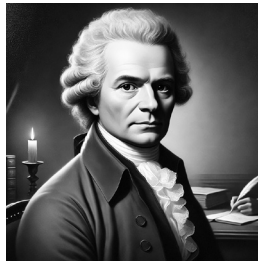
● 라이프니츠: 기억이 없어도 흔적은 남는다

라이프니츠도 로크처럼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떠한 경험을 내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로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 기억이 전혀 없어도 그 경험이 내 마음, 내 성격에 흔적을 남겨서 지금 내 행동을 좌우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재 나를 바꿔 놓았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고 해서 그 경험이 소멸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나는 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연결이 인격 동일성의 근거가 된다고 본거야. 기억이 없더라도, 내 심리적 흐름에 과거가 배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 칸트: 영혼을 증명할 순 없지만, 인격은 이어진다?

칸트는 조금 더 복잡한 주장을 펼쳐. 칸트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사실만으로 영혼의 실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를 통해 영혼이 실재한다고 단번에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칸트는 그건 내부 감각의 대상일 뿐,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영혼이란 물체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이고, 다만 마음으로 인식하는 형태라고 말하는 거지. 칸트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는 건, **복수의 주관**이 순차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유를 이어받을 때도 '나'라고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주장해.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쉽게 말하자면 앞서 존재하는 주관이 사유한 내용이 이어지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복수의 주관을 가지는 사유 주체가 그걸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다만 이런 견해에 대해, **스트로슨**이라는 후대 학자가 "그건 너무 상상적이다. 실질적으로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한 주체로 이어지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비판했어.



철학자	인격 동일성의 근거
데카르트	영혼(사유의 동일성)
로크	기억(경험의 연속성)
라이프니츠	심적 흔적(기억 외 영향)
칸트	영혼 실재성은 증명 안 됨(복수 주관 가능)
스트로슨	(칸트 반박) 심적 연속성으로 충분

● 인격 동일성, 법과 심리학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이제 인격 동일성 문제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논의가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로크의 입장에 따르면 기억이 없으면 동일한 인격이라 보기 어렵겠지만, 현대 법체계는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인격이 분열되거나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철학적 논의가 법적·윤리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다중인격장애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혹은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지.

비슷한 고민은 신경 과학과 임상심리학에서도 이어져. 기억상실 환자는 어제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적 판단과 사회적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지.

칸트가 주장했던 ‘복수의 주관’ 개념도 처음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사례를 생각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만은 아니야. 다만, 스트로슨이 지적했듯, 일상적인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는 데 굳이 복수 주관 이론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고려할 만해. 즉, 칸트의 주장이 철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지.

● 나는 계속 같은 사람일까? 끝나지 않는 논쟁

결국, 우리는 “어제도 나였고, 내일도 나는 나일 거야!”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기저에서는 이런 다양한 철학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데카르트의 영혼 이원론을 믿든, 로크의 기억 이론을 따르든, 칸트처럼 영혼의 실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법, 의료, 윤리, 사회 정책 등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데카르트는 영혼(사유)의 동일성으로, 로크는 기억의 연속성으로 인격 동일성을 설명했고, 라이프니츠는 기억 외에 심적 흔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 칸트는 영혼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복수 주관이 동일한 사유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나’로 의식된다고 주장했지만, 스트로슨은 이를 두고 과도한 상상이라 비판하지. 결론적으로 인격 동일성이란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내가 나임’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근거를 영혼·기억·심적 흔적·복수 주관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해 온 거야. 결국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자아’ 개념이 실제로는 철학사에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온 난제라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 퀴즈

1. 데카르트는 인격 동일성을 신체의 지속성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 사유한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 / ×)

답 ○

[해설] 데카르트는 신체와 정신을 별개의 실체로 보는 이원론적 입장을 가졌으며, 신체가 변하더라도 영혼이 동일하게 사유하는 한 동일한 인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격 동일성의 기준은 신체의 유지가 아니라, 영혼의 지속적인 사유라고 주장한다.

2. 라이프니츠는 인격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는 점엔 동의하나, 과거를 꼭 기억해야만 동일성이 보장된다고 봤다. (○ / ×)

답 ×

[해설] 라이프니츠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경험이 현재 성격이나 행동에 흔적을 남긴다면 심적 상태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았다. 즉, 꼭 기억이 존재해야만 인격 동일성이 보장된다고 보는 로크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3. 칸트는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

답 ×

[해설]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가 내부 감각을 통해 의식될 뿐, 이것만으로 영혼의 실재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영혼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인격 동일성은 복수의 주관이 순차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이어받으며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더 읽을거리

※ 인격 동일성과 법적 책임: 법은 자아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법학에서 **책임 소재의 문제**는 인격 동일성 논의가 실제 사회 제도와 만나면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사례야. 상식적으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사실상 같으니까, 내가 어제 저지른 일에 내가 오늘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

기억상실증에 걸려 과거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있다고 해 보자.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객관적 증거로서 그 사람이 범행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야. 왜냐하면 법 체계에서는 대체로 신체와 인격을 동일한 주체로 보거든. 그런데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과거를 전혀 기억 못 한다면, 그 시절의 인격과 지금의 인격이 정말 같은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 문제는,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철학적 의문을 일일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야. 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기억 상태가 얼마나 온전한지가 양형이나 책임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곤 하거든. 심신미약이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아 인식이 왜곡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형사 책임을 일부 줄이기도 해. 여기에는 범행 시점에 과연 **자아 동일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철학의 질문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법학도 결국 어느 정도의 인격 동일성을 전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거지.

국내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형법은 책임 능력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봐. 여기서는 정상적인 자아 인식과 의사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한편, 판례에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평소와 같이 사고하거나 움직였다면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철학적으로는 **그 자아가 본연의 자아가 맞는지** 아니면 혼미한 상태에서 다른 인격이 발현된 건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통제가 있었다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거지.

반대로 정신병적 망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행동을 기억하거나 판단조차 못 한다는 식이라면, 법원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인정해 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도 하지. 이때는 기억 인식 판단이라는 심적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고 보는 거야. 철학적으로는 '인격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혹은 '그 당시 인격이 온전치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철학자가 인격 동일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기는 해.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가 성전환이나 장기 이식처럼, 몸이 커다랗게 달라지는 사례야. 신체가 바뀌었는데도 동일한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하는 근거는 뭘까? 법적으로는 이름이나 신분 정보 등을 유지하되,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식인데, 철학적으로는 몸이 달라도 기억과 정신 작용이 이어져 있으면 같은 사람이라는 로크식 관점과 겹쳐 보일 수 있어.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는 신체적, 개인적 정보를 반영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준이 사소하게라도 틀어지면(예를 들어, 출생 등록에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성별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 여기서도 결국 이 사람이 계속 동일한 인격이라는 가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성하느냐가 문제가 돼.

정리하자면, 법학에서는 '네 몸과 네 정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체였으니 책임도 네 몫이야!'라는 식으로 인격 동일성을 전제하지만, 철학이나 심리학에선 그게 정말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는 거야. 한국 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기억이 없는데도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와 정신 질환으로 책임 능력이 일부 조각된(면제된) 사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어. 이 모두가 인격 동일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지. 결국 인격 동일성이라는 건 한낱 추상적 철학 논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왜 법이 종종 치매 환자에게도 본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가족이 대신 법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개념어

환위험, 환율 변동, 환 노출, 순 노출, 환위험 관리(헤지), 네팅, 매칭, 선물환 헤지, 통화 옵션 헤지

● 환위험이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의외로 '미래 예측'이란 게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절감하게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이란 결국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이잖아. 그런데 국제 금융 거래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특히 두드러져. 왜냐하면 환율이 시시각각 움직이기 때문이야.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물건 가격이나 이자율 같은 건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지만, 자금 거래에 외화가 얽히는 순간부터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돼서 변수가 훨씬 많아져. 그래서 기업들은 환위험(exchange risk)이라는 걸 늘 신경 쓰게 되는데, **환위험**이란 간단히 말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야.



환율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

● 환위험, 손해만이 아니라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환위험이 단순히 환율이 떨어져서 생기는 손해만 의미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환위험은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포함해, 실제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전반을 가리킨다는 점이 중요해.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환위험은 '(환율 변동 폭) × (환 노출)'**로 나타낼 수 있어. 여기서 '**환 노출(currency exposure)**'이란, 기업이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외화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나(또는 앞으로 받게 될 외화와 지급해야 할 외화가 얼마일 것으로 예상되는나)의 차이를 뜻해. 환 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외화로 표시된 부채)'로 나타나는 '**순 노출**'로 측정할 수 있고, 여기서 순 노출의 절댓값이 클수록 환 노출이 큰 거야. 예를 들어 달러를 받을 일이 많고 줄 일은 적다면, '달러 순 노출'이 양(+)방향으로 많다고 볼 수 있지. 이때 환율이 달러당 10원만 떨어져도, 순 노출이 큰 기업일수록 손해액이 훨씬 커지겠지.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순 노출이 큰 기업이 더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어. 즉, 동일한 환율 변동 아래에서도 순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업이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 환위험, 대응할 방법은 있다: 헤지 기법

그러면 기업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환율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 환율 변동은 시장 요인이니 어쩔 수 없어도, 환 노출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환위험 관리(hedg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전략을 말해. 환위험 관리 기법을 통칭해서 '헤지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보면 기업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뉘어.

● 내부적 환위험 관리: 네팅과 매칭

먼저 **내부적 관리** 기법부터 살펴보면, 기업 내부적으로 채무 관리를 통해 순 노출 자체를 줄여서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금액을 애초에 축소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네팅(netting)이나 매칭(matching)같은 방법이 있어.

네팅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들, 혹은 지사 간 거래에서 쓰이는 전략인데, 여러 회사가 서로에게 돈을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을 때, 매번 따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모두 합산해 최종 차액만 한 번에 결제하는 거지. 이러한 과정을 '상계'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 자세히 이해해 보자.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본사와 A 지사, B 지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달 동안 여러 거래가 오갔고, 각 지사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다음처럼 형성되었어.

- └ A 지사: 한 달 동안 본사에 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함.
- └ 본사: 한 달 동안 B 지사에 3만 달러를 지급해야 함.
- └ B 지사: 한 달 동안 본사에 2만 달러를 지급해야 함.

(1) 만약 이를 네팅 없이 따로따로 정산한다면?

만약 네팅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거래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각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직접 지급해야 해.

- └ A 지사 → 본사: 5만 달러 지급
- └ 본사 → B 지사: 3만 달러 지급
- └ B 지사 → 본사: 2만 달러 지급

이렇게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러 번 돈이 오가게 되지.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사는 B 지사에게 3만 달러를 줘야 하고, 동시에 B 지사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아야 하잖아? 즉, 굳이 두 번의 거래를 할 필요 없이, 본사가 지사에 (3만-2만)=1만 달러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야.

(2) 네팅을 적용해서 정산하면?

이제 네팅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자. 각 거래를 하나로 묶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면 되는지를 따지면 돼.

- └ A 지사 → 본사: 5만 달러 지급 (이건 변동 없음)
- └ 본사 → B 지사: 3만 달러 지급
- └ B 지사 → 본사: 2만 달러 지급

➡ 본사는 B 지사에 3만 달러를 주지만, B 지사도 본사에 2만 달러를 줘야 하니까, 그냥 B 지사는 본사로부터 3만 달러를 받는 대신, 2만 달러는 상계처리(서로 없던 걸로) 하고, 실제로 1만 달러만 받으면 되는 거야.

즉, 네팅 결과

- └ A 지사 → 본사: 5만 달러 지급
- └ 본사 → B 지사: 1만 달러 지급 (3만-2만=1만)

이렇게 되면 각자 따로따로 돈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한 번씩만 정산하면 끝나게 돼.

이렇게 하면 매번 외환 결제를 할 때마다 생기는 수수료(은행 수수료, 환전 스프레드 등)를 절감할 수 있고, 결제가 한 번으로 정리되니 환 노출 기간도 짧아지는 장점이 있어. 다만 결제 시점

이 낮춰지거나 결제 통화가 달라질 때 환율 변동 위험이 무작정 쌓일 수 있으니, 결제 주거나 중앙 결제 센터 운영 방식을 잘 설계해야 해.

매칭은 “수출로 들어올 외화랑 수입으로 나갈 외화를 같은 통화·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상쇄시키자”라는 전략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제품을 팔아서 3개월 후 달러로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거기에 맞춰 부품이나 원자재도 미국 쪽에서 달러로 사 오는 식으로 세팅하는 거지. 이러면 환율이 변하더라도, 수출과 수입에서 서로 맞물려서 순 노출이 줄어들어. 나라마다 통화가 달라서 생기는 환전 과정을 일일이 거칠 필요도 덜해지고, 한꺼번에 결제될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불필요한 위험이 감소하는 셈이야. 다만 이 매칭은 단순히 그룹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제삼자 거래에서도 자주 활용돼. 우리가 자동차 수출 대금을 유로화로 받는다면, 유로화로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를 찾거나 협의해 ‘유로-유로’로 매칭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때도 시점이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중요해.

-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지사 간 채무를 한 번에 정산하여 불필요한 외환 결제와 수수료를 줄이는 전략.
- 매칭은 수출과 수입의 통화를 맞춰서 환율 변동 위험을 자연스럽게 상쇄시키는 전략.
- 네팅과 매칭 모두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기업 내부적 환위험 관리 기법이지만, 결제 시점과 통화 일치가 중요함.

● 외부적 환위험 관리: 선물환 헤지와 통화 옵션 헤지

그럼 **외부적 관리 기법**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이용해 직접 환율 변동에 베팅을 하는 거야.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흔한 게 ‘선물환(forward) 헤지’와 ‘통화 옵션(currency option) 헤지’야. **선물환 헤지**는, 미래에 달러(혹은 다른 외화)를 얼마에 사고팔지를 지금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야.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은 평가원 기출에서 자주 봤지? 동일한 개념인데, 이를 외화 거래에 적용해서 이해하면 쉬워. 가령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지만, 3개월 뒤 환율이 1,200원으로 예상된다면, 3개월 뒤 10만 달러를 1달러당 1,200원에 인수·인도하기로 미리 계약을 맺는 식이지. 이렇게 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 실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난 3개월 뒤에 10만 달러를 달러당 딱 1,200원에 교환할 권리·의무를 가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고정돼서 안심이라는 거야. 문제는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할 가능성마저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지.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버리면 거래 상대방 기업은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미 1,200원에 약정해 뒀으니 그 추가 이익은 못 가져가는 거지.

“이익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환위험만 막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해서 나온 게 **통화 옵션 헤지**야. **옵션**이란, 미래 시점이나 그 이전에 미리 정한 환율(행사 가격)로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해. 권리니까 내가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이 선물환 헤지와 차이가 나는 거지. 선물환 헤지는 거래하기로 약정을 해뒀기 때문에 만기일에 꼭 거래를 해야만 하지만, 옵션은 말 그대로 ‘거래할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정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옵션을 행사해 이득을 실현할 수 있고, 환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굳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해 버리면 돼. 문제는 그 권리를 가진다는 건 공짜가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야.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낸 뒤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한 다음에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그 옵션을 행사해 손실을 막고,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 용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상황을 떠올려 이해해 보면 되게 쉬워.

● 콜 옵션 vs. 풋 옵션: 환위험을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옵션의 종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어. 콜 옵션은 미래에 특정 환율로 외화를 “살 수 있는” 권리고, 풋 옵션은 미래에 특정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권리야. 두 옵션 모두 환율 변동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행사하지 않아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잠재 이익은 포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단, 그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말했지? 다음의 예시를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 콜 옵션 예시

- **상황:** 한국의 한 수입업체가 3개월 뒤에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예정인데, 그때 환율이 너무 오르면(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지불해야 할 원화가 늘어날 것이 걱정이야. 지금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으로 가정하자.
- **선택:** 업체는 3개월 뒤에 1달러를 1,32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매입권)을 미리 사 뒤, 옵션 프리미엄은 달러당 10원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10만 달러에 대해 총 1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내야 해.
- **시나리오 A:** 3개월 후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 업체 입장에선 옵션 행사 가격(1,320원)이 시장 환율(1,400원)보다 싸니까, 옵션을 행사해서 달러를 1,320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10만 달러를 1억 3,200만 원에 구입하게 되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10만 달러 \times (1,400 - 1,320) = 800만 원)$ 이득이야. 물론 옵션 프리미엄 100만 원을 이미 냈으니, 실제 이득은 700만 원 정도가 되겠지.
- **시나리오 B:** 3개월 후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옵션 행사 가격(1,320원)이 시장 환율보다 비싸. 이럴 때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1,200원에 달러를 사면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해. 옵션은 버려지지만, 프리미엄 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시장 환율 덕분에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셈이야.

(2) 풋 옵션 예시

- **상황:** 한국의 한 수출업체가 3개월 뒤에 2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인데,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같은 달러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들 것이 걱정이야. 지금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으로 가정하자.
- **선택:** 업체는 3개월 뒤에 1달러를 1,300원에 팔 수 있는 풋 옵션(매도권)을 미리 사 뒤, 옵션 프리미엄은 달러당 15원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20만 달러에 대해 총 300만 원 $(20만 달러 \times 15원)$ 의 프리미엄을 내는 거지.
- **시나리오 A:** 3개월 후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졌다면, 시장 환율보다 옵션 행사 가격(1,300원)이 훨씬 유리하지. 업체는 달러를 옵션 행사 가격인 1,300원에 팔아서 $20만 달러 \times 1,300원 = 2억 6,000만 원$ 을 확보할 수 있어. 원래 시장 환율(1,100원)대로라면 2억 2,000만 원밖에 못 받으니, 옵션 덕분에 4,000만 원의 추가 이득을 얻은 거야. 프리미엄 300만 원을 뺀다고 해도 훨씬 유리하지.
- **시나리오 B:** 3개월 후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 옵션 행사 가격(1,300원)은 시장 환율보다 낮으니 옵션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시장에서 1,400원에 달러를 팔아서 2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사라지지만, 이 경우라도 환율 상승의 이익의 기회를 고스란히 누린 거야.

- 선물환 거래는 미래의 특정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계약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만, 추가 이익 기회를 포기하는 단점이 있음.
- 통화 옵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
- 콜 옵션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외화를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외화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콜 옵션과 풋 옵션 모두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함.

● 선물환 vs. 통화 옵션: 기업은 어떤 헤지 전략을 선택할까?

이렇듯 선물환 헤지와 통화 옵션 헤지는 각각 특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선물환 헤지는 프리미엄 같은 추가 비용 없이 확실히 환율 리스크를 없애지만, 유리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포기한다는 약점이 있어. 통화 옵션 헤지는 자유도가 크고 유리한 방향의 환율 변동은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그 비용이 만만찮을 수도 있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상황(예를 들어, 향후 달러 유입이 확실한지, 혹은 예측 불가능한 주기적 수출인지 등), 시장 전망(환율 상승 예측인지,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 등), 그리고 전략(안정성을 중시하는지, 이익 창출 기회를 노리는지)을 다 따져서 어떤 방식으로 헤지를 할지 정하게 돼.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환위험은 기업이 외환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해. 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네팅, 매칭 같은 내부적 관리 기법과 선물환 헤지, 통화 옵션 헤지 같은 외부적 관리 기법을 활용해 헤지 전략을 세워. 특히 선물환 헤지는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추가 이익 기회도 사라지는 반면, 통화 옵션 헤지는 일정 비용(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유리한 환율 변동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기업들은 자신의 상황과 시장 전망을 고려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지, 추가 이익 가능성을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이 환위험 관리의 핵심이지.

○× 퀴즈

1.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예상과 다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만을 의미한다. (○ / ×)

답 ×

[해설] 환위험은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2. 네팅(Netting)은 다국적 기업의 여러 지사 간 거래를 상계하여 불필요한 외환 결제를 줄이고 환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 ×)

답 ○

[해설] 네팅은 지사 간 결제 내역을 정리하여 최종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 횟수를 줄이고 외환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업 내부 관리 기법이다.

3. 선물환 헤지는 미래의 특정 환율로 외화를 사고팔기로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 / ×)

답 ○

[해설] 선물환 헤지는 계약된 환율로 거래가 확정되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하지만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할 경우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4. 콜 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고, 풋 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통화 옵션을 말한다. (○ / ×)

답 ×

[해설] 콜 옵션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행사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고(외화를 싸게 구매해 더 높은 원화 가치로 팔 수 있으므로), 풋 옵션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행사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 더 읽을거리

※ 통화 스왑과 이자율 스왑

스왑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서로 필요한 통화나 금리 조건을 '교환'하는 장기 계약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통화 스왑**은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상대방의 유로나 엔화와 맞바꾸는 식이야. 이때 서로 교환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금리를 주고받고, 만기나 조건도 미리 정해 놓지. 이렇게 하면 굳이 시장에서 새로 환전을 안 해도 필요한 통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국가끼리도 통화 스왑을 맺는데, 중앙은행끼리 "필요할 때 서로 일정 한도까지 통화를 빌려주자"하고 협정을 맺는 거야. 외환 위기가 닥치면 이런 스왑 협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이자율 스왑은 통화를 바꾸는 대신 금리 형태만 바꾸는 계약이야. 예컨대 A 회사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B 회사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A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는 손해볼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B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 고정금리로는 손해볼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A와 B가 스왑을 맺어 서로의 금리 조건을 교환하면, A는 고정금리처럼 확정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B는 변동금리로 이익을 노릴 기회를 얻는 거지.

스왑 거래는 기업과 은행, 투자은행(IB) 사이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때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협정을 맺어 외환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하기도 해. 다만 스왑 계약은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 여러 건의 스왑이 겹치거나 옵션, 선물환 등 다른 파생상품과 섞이면, 기대와 달리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

결과적으로, 스왑이라는 건 환율이나 금리 위험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통화나 금리 조건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싶을 때 유용해. 나라 전체 차원에서도 외환 유동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 국제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나라와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할 텐데, 이게 바로 위기 때 서로 통화를 빌려주고자 약속함으로써 환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거라고 기억하면 돼.

변동금리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우대 금리에 연동해서 바뀌는 금리

고정금리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

투자은행

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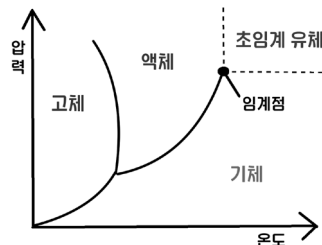
개념어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점, 초임계 유체, 밀도, 용해도, 초임계 이산화 탄소, 분리 공정, 역전 점, 유기 용매

● 초임계 유체: 기체도 액체도 아닌 독특한 상태

우리는 보통 기체는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된다고 생각해. 탄산음료 캔을 떠올려 보면, 내부의 이산화 탄소(CO_2)가 꽤 높은 압력 아래에서 음료 속에 녹아 있고(액체 상태), 뚜껑을 따면 압력이 확 떨어지면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잖아. 그런데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데에는 온도와 압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이 더 중요해.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해 “이 온도 이하로 낮추고, 압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 액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값이 존재하지.

그런데 온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아지면(이를 ‘**임계 온도**’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압력을 키워도 기체가 액체로 변하지 않는 영역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19세기 초에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화학자가 이 영역을 실험으로 밝혀냈는데, 이산화 탄소의 임계 온도가 약 31°C , 그리고 이 온도에서 액화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압력(이를 ‘**임계 압력**’이라고 부르지)이 약 73.8bar(대기압의 70배를 살짝 넘어) 정도라고 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임계점**’인데, 온도와 압력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물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supercritical fluid)라는 독특한 상태가 돼.



bar(바)
압력의 단위. 1bar는 약 1기압에 해당함

● 초임계 유체의 특징: 밀도와 용해도의 변화

초임계 유체가 특별한 이유는 이 상태에서는 물질의 밀도를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야. **밀도**란 같은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단위 부피당 질량)를 나타내지. 보통 기체는 밀도가 낮고, 액체는 밀도가 높은 편인데, 초임계 유체 상태에선 온도나 압력을 조금만 바꿔도 밀도가 크게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산화 탄소가 임계점 이하에 있을 땐 압력을 55bar에서 200bar로 높여도 밀도가 17% 정도만 증가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 초임계 영역에선 무려 570% 넘게 변할 수 있어. 한 재료 안에서 기체처럼 가벼웠다가 액체처럼 무거워지는 변화를 훨씬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셈이지.

이렇게 밀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용해도**’라는 것도 크게 달라져. 용해도는 물질이 용매(액체나 유체)에 얼마나 잘 녹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유체의 밀도가 높아지면 같은 부피 안에 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용질을 더 잘 녹일 수 있게 돼. 반대로 밀도가 낮아지면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들고. 즉, 초임계 유체에서는 온도·압력을 조절하여 밀도를 바꿈으로써 ‘잘 녹게 하거나, 잘 안 녹게 하거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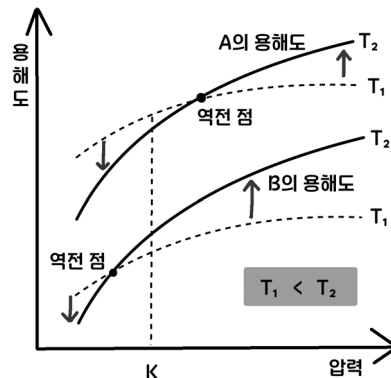
용매
용액에서 용질을 녹이는 물질

용질
용액에서 용매에 녹는 물질

- 초임계 유체는 물체의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넘을 때 가지게 되는 독특한 상태로,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는 밀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같은 물질이 기체처럼 가볍거나 액체처럼 무겁게 변할 수 있음.
- 밀도가 변함에 따라 용해도도 달라져서 초임계 유체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어떤 물질이 잘 녹거나 잘 녹지 않게 만들 수 있음.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분리 공정

귤껍질에서 향료 성분(리모넨, 시트랄)을 분리해 내려고 해. 귤껍질을 가만히 두면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향기 물질이 뒤섞여 있어. 귤 향기(혼합물)에서 리모넨(A)과 시트랄(B)을 추출해 순도 높은 성분을 얻고자 할 때에는, 먼저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혼합물을 녹이고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튀어 나오도록(석출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용해도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 ‘초임계 이산화 탄소(용매) 1리터에 A/B(용질)가 몇 g이나 녹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가로축은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낸 거야. 이때 낮은 온도(T_1)와 높은 온도(T_2)에서 A와 B 각각의 용해도 곡선이 그려지는데,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압력일지라도 용해도가 달라지므로 곡선의 위치나 기울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보통 압력이 올라가면 유체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T_1 과 T_2 모두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A와 B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압력이 동일하게 변하더라도 온도에 따라 용해도의 변화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역전 점’이라 불리는 지점에서 T_1 과 T_2 의 두 그래프가 교차하게 되지.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줄어들던 구간(역전 점의 왼쪽 구간)이 역전 점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 때 용해도가 커지는(역전 점의 오른쪽 구간) 식으로 변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역전 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A와 B가 함께 섞여 있을 때 A만 먼저 석출시키거나 B를 뒤늦게 분리하려면, A와 B 각각이 어느 온도 · 압력 조건에서 녹고, 어느 순간 석출되는지를 비교해야만 하기 때문이야. 둘의 용해도 차이를 노리면 A와 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특히 역전 점을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때 용해도가 뚝 떨어지는’ 타이밍이나 ‘오히려 용해도가 더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파악하면, 원하는 물질을 먼저 또는 나중에 빼낼 수 있지. 압력을 K로 유지한 상태에서 A와 B를 분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① 유체의 온도를 T_2 에서 T_1 으로 낮추기

→ A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하고, B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니까 B가 먼저 석출될 거야

② 유체의 온도를 T_1 에서 T_2 로 높이기

→ 이번에는 A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하여 남아 있는 A도 석출될 거야

특정한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적절히 변화시킴으로써 A와 B를 순차적으로 분리해 낼 수 있지. 결국 이 그래프에서 A와 B 각각의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고, 이를 통해 혼합물 안에서 특정 물질만 골라 석출시키는 초임계 분리 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분리 공정에서는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혼합물에서 특정 성분을 단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
- 역전 점은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계로, 역전 점 이전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지만, 역전 점을 지나면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도 증가하게 됨.
- 용해도 그래프에서 역전 점을 통해 두 물질의 용해도 변화를 확인하고, 적절한 온도 변화를 일으켜 두 물질을 순차적으로 석출시킬 수 있음.

● 초임계 유체 기술의 장점과 한계

압력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춰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물질마다 달리 나타나는 용해도를 이용해 분리 효율을 높이는 게 초임계 유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야. 한 성분을 먼저 석출시키고, 다른 성분은 나중에 석출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분리 공정은 유기용매를 쓰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용매가 남는 문제(잔류물)나 폐기물 처리가 훨씬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어. 물론 초임계 상태를 만들려면 고압·고온을 견디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초기 설비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어. 그래도 최근에는 친환경 공정이나 고순도 물질 분리가 관심을 받으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높이 평가받고 있지.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초임계 유체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면서 밀도와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독특한 상태의 물질이야. 이 특성을 이용하면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용해도를 변화시켜 혼합물 속 원하는 성분을 순차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 특히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분리 공정에서는 압력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특정 물질을 먼저 석출시키거나 나중에 분리하는 방식으로 고순도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잔류물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덕분에, 이 기술은 정밀한 성분 분리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 결국, 초임계 유체의 용해도를 적절히 조절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분리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유기용매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진 용매.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녹이는 데 사용함

○× 퀴즈

1. 초임계 유체는 특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만 존재하며, 물질마다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조건이 다르다. (○ / ×)

답 ○

[해설] 초임계 유체는 물질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형성되며, 이 값은 물질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약 31°C이지만, 물의 임계 온도는 약 374°C로 훨씬 높다. 따라서 모든 물질이 동일한 조건에서 초임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초임계 유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용해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 / ×)

답 ×

[해설] 초임계 유체는 대개 역전 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하고, 역전 점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3.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분리 공정은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분리 공정보다 잔류물이 적고 친환경적이다. (○ / ×)

답 ○

[해설]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분리 공정은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용매 잔류물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이 덕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순도 높은 물질을 분리하는 데 유리하다.

● 더 읽을거리

※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만드는 디카페인 커피의 비밀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카페인을 줄이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떠올리는 게 디카페인 커피인데, 커피 원두 속 카페인을 어떻게 빼낼까? 예전엔 주로 유기용매(메틸렌클로라이드 등)에 커피 원두를 담그고 카페인을 녹여냈지만, 이 방식은 잔류 용매 문제와 커피 향 손실이 꽤 컸어. 그래서 최근에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

앞서 살펴봤듯이, 초임계 상태는 이산화 탄소를 임계점(약 31도, 73.8bar) 이상으로 가열·가압해 액체도 기체도 아닌 중간 성질을 갖게 만드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밀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압력을 높여 카페인 용해도를 키워서 원두에서 카페인을 잘 뽑아낼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압력을 낮추거나 온도를 바꾸면, 이산화 탄소가 기체 상태로 돌아가면서 카페인을 놓아주는 거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원두 속 카페인 함량을 97%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게다가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커피의 향 성분에는 상대적으로 잘 녹지 않아서, 카페인만 골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체처럼 증발이 빠르고 용매 찌꺼기가 남지 않아 안전성도 높아. 그래서 요즘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데 이 기술을 활용하는 로스터리나 커피 전문점이 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

정리하자면, 초임계 이산화 탄소 기술은 안전하게 카페인을 빼내면서도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최대한 지켜 준다는 점에서, 친환경·고품질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려는 업계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어.

※ 초임계 유체로 만드는 나노 입자의 세계

초임계 유체는 나노 입자 합성에도 널리 쓰이고 있어. 일반 액체나 기체 공정은 온도와 압력 제어가 까다롭고, 입자가 뭉치는 문제가 쉽게 생기지만, 초임계 상태는 액체와 기체의 특성을 동시에 지녀서 훨씬 유연하게 공정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야.

나노 입자를 만들 때는 먼저 원하는 물질(예를 들어 금속염이나 유기 분자)을 초임계 유체에 녹여야 해. 초임계 상태는 밀도와 용해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특정 농도로 물질을 고르게 녹일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압력을 낮추거나 온도를 바꾸면, 초임계 유체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녹아 있던 물질이 매우 작은 알갱이 형태로 뿌려져 나와. 이런 과정을 초임계 분무 건조 또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나노 입자 형성이라고 불러.

일반 용매를 쓰는 방식은 쉽게 입자가 뭉치고, 잔여 용매가 남을 수도 있어. 반면 초임계 유체는 기체처럼 확산이 빠르고, 액체처럼 농도가 높아도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어. 그래서 입자가 고르게 분산되고, 유체가 사라질 때 잔여물이 거의 남지 않아 매우 균일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얻을 수 있지.

이 기술은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처럼 균일한 입자 크기가 요구되는 첨단 산업부터, 약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약물 입자를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제약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중이야. 초기 공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